

5) 농 구

농구경기는 황성중앙기독교청년회의 초대 총무였던 미국인 질레트에 의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질레트는 처음 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농구를 가르쳤는데 그가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귀국하면서 실질적인 보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1907년 7월 23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귀국한 동경 유학생팀과 기독교청년회팀의 농구경기가 훈련원에서 거행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구경기의 서막을 장식한 대회로 일컬어진다.

그후 농구경기는 1916년 미국인 반 하트가 기독교청년회의 간사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지도, 보급이 이루어졌다. 1920년 기독교청년회관의 완공으로 실내 구기종목의 총아로 성장한 농구는 그해 3월 24일 서양인팀과 중앙기독교청년회팀이 정식 대전을 가졌다.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자 4일 만에 2차 경기를 갖는 등 장안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신종 스포츠로 발돋움하였다. 중앙기독교청년회팀은 우리나라 농구발전 초창기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1920년 일본 원정 후 재정난으로 부득이 해산하였다. 그러나 박부양·김종만·김주호 등을 중심으로 1925년에 다시 농구경기를 주최하였다. 이때 서양인 여자 농구경기를 비롯하여 이화학당 학생들의 오픈경기를 통하여 여자 농구가 첫선을 보인다.

순천에서는 은성학원의 선교사와 김원복의 지도로 동내 농구가 이루어졌다. 서양에서 백보드를 처음 들여와 농구연습을 시키던 김관수는 매산학교에서 농구팀을 조직하였다. 1935년 경 광주 수피아여중에서 처녀출전하여 첫 경기는 이기고 두번째 경기는 패하여 귀향하였던 기록이 있다. 그후 순천에서는 농구가 조직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학교·생활체육 일환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순천기독교청년회에서는 시 후원으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